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51

대중국 무역업체 위안화 수요 분석

2014년 11월

오세환 수석연구원

문병기 연구원

심혜정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한·중 무역 및 투자 동향	1
II.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8
III. 위안화 무역결제의 장단점 및 비용·편익 비교	14
IV. 대중국 무역업체 위안화 수요 인터뷰 결과	18
V. 대중국 무역업체 위안화 수요 분석	24
VI. 요약 및 결론	34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오 세 환 수석연구원 (☎ 02-6000-5184, sehvano@kita.net)

문 병 기 연구원 (☎ 02-6000-5185, bkmun@kita.net)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 : //iit.kita.net](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3%에 달한다. 대중국 교역규모에 비해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비중(금년 2/4분기 중 수출의 1.9%, 수입의 0.8%)은 극히 미미하다.

최근 중국은 양자간 협정을 통해 통화스와프 및 위안화 역외시장을 확대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은 2012년 1월 5.5%에서 2014년 8월 18.0%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내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 쿼터를 획득하는 등 위안화 활용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안화 무역결제에는 대중국 무역비중이 높고 무역규모가 상당한 기업의 경우 환위험 회피 및 환전수수료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거래형태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송금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국 수입업체의 환전비용이 절감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송금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중국 수출업체는 환전비용 및 수수료가 절감된다. 특히 중국내 거래업체가 우리나라 현지 투자법인인 경우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3년 대중 무역 상위 업체 2,000개사(우리나라 대중 무역의 83.3% 차지)를 대상으로 기업별로 외환수급, 결제방식, 대중 수출·수입 등을 감안하여 위안화 수요를 분석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총 1,183개사가 725.0억 달러를 위안화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별로 전체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원부자재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화 공급이 충분한 업체일수록 위안화로의 무역결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위안화 수요 추정액(725.0억 달러) 중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은 463.5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대중 송금 수출액이 대중 송금 수입액보다 큰 기업일수록 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원-위안 무역결제의 장점(거래비용 절감, 결제통화 다양화 등) 및 활용관련 정보제공 등 대업체 홍보 강화와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본문

I. 한중 무역 및 투자 동향

1. 한중 무역 동향

□ 지난 20여년간 대중국 무역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0%에서 2013년 21.3%에 달함

○ 對中 수출입은 1992년 한·중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2,200억 달러를 상회

－ 한·중 수교 이후 지난해까지 22년 동안 對中 수출은 연평균 25.4% 증가, 對中 수입은 15.6% 증가하면서 대세계 수출, 수입 보다 가파르게 증가

* '93~'13년 對中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 (무역) 18.6% (수출) 21.0% (수입) 15.9%

* '93~'13년 대세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 (무역) 9.5% (수출) 9.9% (수입) 9.2%

－ 이에 따라 중국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0%에서 2013년 21.3%까지 상승

*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수출대상국, 2007년부터는 제1의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대중 수출입 추이>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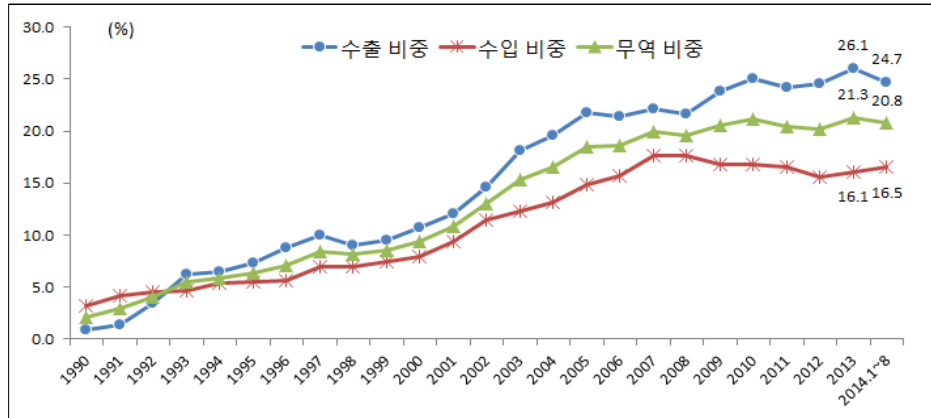
	1992	2000	2010	2013	2014년 1~8월	'93~'13 연평균 증가율
수출 (증가율)	27 (164.7)	185 (34.9)	1,168 (34.8)	1,459 (8.6)	934 (-1.6)	(21.0)
수입 (증가율)	37 (8.3)	128 (44.3)	716 (31.9)	831 (2.8)	580 (6.1)	(15.9)
교역 (증가율)	64 (43.6)	313 (38.6)	1,884 (33.7)	2,289 (6.4)	1,514 (1.2)	(18.6)
수지 〈증감〉	-11 〈14〉	57 〈8〉	453 〈128〉	628 〈93〉	354 〈-48〉	-

주 : () 내는 수출입의 전년동기비 증가율, ◇ 내는 무역수지의 전년동기비 증감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2013년 21.3%로 EU(9.8%), 미국(9.6%), 일본(8.8%)보다 2배 이상 높음

- * 국가별 수출 비중('13년, %) : (중국) 26.1% (미국) 11.1% (EU) 8.8% (일본) 6.2%
- * 국가별 수입 비중('13년, %) : (중국) 16.1% (일본) 11.6% (EU) 10.9% (미국) 8.0%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과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양국간 교역품목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대중국 수출 중 원자재 비중이 1992년 81.7%에서 올해 들어 32.6%로 급감했고, 동 기간 자본재 비중은 12.6%에서 61.7%로 49.1%p 증가

- * 대중국 수출의 성질별 비중('13년, %) : (원자재) 32.6% (자본재) 61.7% (소비재) 5.6%

<對중국 수출 품목 변화>

(백만달러, %)

순위	1992			2013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철강판	217	15.8	반도체	21,670	14.9
2	합성수지	186	11.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8,562	12.7
3	선재봉강 및 철근	84	8.9	석유제품	8,380	5.8
4	가죽	79	5.3	전자응용기기	7,881	5.4
5	인조섬유	77	4.9	합성수지	7,726	5.3
6	인조장섬유직물	62	3.7	석유화학중간원료	6,213	4.2
7	종이제품	56	3.4	자동차부품	5,570	3.8
8	섬유 및 화학기계	52	2.9	무선통신기기	5,164	3.6
9	석유제품	45	2.8	기초유분	4,462	3.1
10	기타석유화학제품	34	2.6	기구부품	3,425	2.3
	전체	2,654	100.0	전체	145,869	100.0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대중국 수입 품목은 1992년 식물성물질, 원유 등 원자재 위주에서 2013년에는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등 IT제품의 비중이 증가

－ 대중국 전체 수입 중 자본재 비중이 1992년 3.8%에서 올해 들어 46.5%로 급증했고, 2013년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는 약 20% 차지

* 대중국 수입의 성질별 비중('13년, %) : (원자재) 32.4% (자본재) 47.2% (소비재) 20.3%

<對중국 수입 품목 변화>

(백만달러, %)

순 위	1992			2013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식물성물질	657	17.6	반도체	6,520	7.8
2	원유	223	6.0	컴퓨터	5,400	6.5
3	인조단섬유직물	222	6.0	철강판	4,060	4.9
4	시멘트	214	5.7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3,903	4.7
5	석탄	210	5.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458	4.2
6	견직물	178	4.8	의류	3,406	4.1
7	곡실류	142	3.8	무선통신기기	3,164	3.9
8	정밀화학원료	107	2.9	정밀화학원료	2,819	3.4
9	면직물	103	2.8	기구부품	2,303	2.8
10	기타농산물	103	2.8	전선	2,053	2.5
	전체	3,725	100.0	전체	83,053	100.0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 對중국 투자 동향

- 우리나라의 對중국 누적투자는 482.5억 달러(투자금액 기준)로 투자국 중 미국(536.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신규법인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최대 투자 대상국임
- 신규법인수 기준으로는 대중국 진출기업수는 24,512개사로 전체 누적 신규법인수(61,492개사)의 39.9%를 차지
-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 모비스, POSCO, CJ, 이랜드, 오리온 등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에너지·자원, 식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진출이 활발함

<우리나라 對중국 투자 추이>

(건, 수, 억달러)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6월	전체
신고건수	4,913	4,852	3,502	2,249	2,428	2,333	1,948	1,974	860	51,671
신규법인수	2,390	2,217	1,361	768	923	864	743	834	372	24,512
신고금액	46.1	73.4	49.6	28.2	44.2	48.1	69.0	48.8	19.6	650.1
투자금액	35.1	55.9	39.1	24.8	36.6	37.1	39.1	51.1	15.6	482.5
증가율	21.0	59.3	-30.0	-36.7	47.9	1.3	5.3	30.7		

주 : 전체는 '68년~'14.6월까지의 누적 실적, 증가율은 투자금액의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對중국 투자 업종은 현재까지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

- 올해 6월까지 對중국 누적투자 중 제조업은 17,131개사가 373.3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업수 기준으로 69.9%,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7.4%를 차지
- 제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등 IT 업종 비중이 34.3%로 가장 크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12.7%), 기타 기계 및 장비 업종(6.3%) 순임 (2013년말 투자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 업종별 추이>

(건, 개, 억달러, %)

업종	신고 건수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개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38,368	17,131	69.9	488.1	75.1	373.3	77.4
금융 및 보험업	295	128	0.5	42.9	6.6	31.0	6.4
도매 및 소매업	4,697	2,821	11.5	31.2	4.8	24.2	5.0
기타	8,311	4,432	18.0	87.8	13.5	57.6	11.9
전 체	51,671	24,512	100.0	650.1	100.0	482.5	100.0

주 : '68년~'14.6월까지의 누적 실적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 한·중 무역결제 통화

☐ 대중국 교역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금년 상반기 중 수출의 0.4%, 수입의 0.13%에 불과
- 현행 무역 거래시 결제 통화는 달러가 대부분으로 금년 상반기 중 달러 결제 비중은 수출의 85.4%, 수입의 84.5%를 차지

<결제통화별 수출입 비중(2014.1~6p)>

(%)

	달러	유로	엔화	원화	위안화
수출	85.4	5.9	3.2	2.0	0.4
수입	84.5	5.6	5.1	3.8	0.13

자료 : 한국은행

☐ 대중 수출입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최근 들어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

- 위안화 결제 비중은 대부분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

<우리나라의 위안화 결제 수출입 비중* 추이>

(%)

		2011	2012	2013	2014.1~6 ^p
수출	전세계	0.1	0.2	0.4	0.4
	중 국	0.1	0.2	0.4	0.4
수입	전세계	0.03	0.05	0.11	0.13
	중 국	0.03	0.05	0.11	0.13

* 전체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 대중 수출의 경우 대부분에서 달러(비중 95.3%)가 이용되고 있으며, 위안화(1.9%) 비중은 미약하나마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금년 2/4분기 기준으로 수출의 1.9%, 수입의 0.8%를 차지

<대중국 결제통화별 수출입 비중*>

(%)

결제통화	수출						수입					
	2013				2014 ^p		2013				2014 ^p	
	1/4	2/4	3/4	4/4	1/4	2/4	1/4	2/4	3/4	4/4	1/4	2/4
달러	96.4	95.7	95.1	94.1	95.5	95.3	95.0	95.2	95.1	94.4	94.7	95.5
엔화	0.7	1.0	1.5	1.5	0.7	0.7	1.2	1.3	1.3	1.1	1.0	0.8
유로	0.5	0.4	0.4	0.5	0.5	0.5	1.6	1.4	1.4	2.1	1.9	1.2
원화	1.0	1.1	1.5	2.4	1.7	1.6	1.4	1.3	1.3	1.6	1.4	1.4
위안화	1.5	1.8	1.5	1.6	1.6	1.9	0.5	0.7	0.8	0.7	0.8	0.8

* 대중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4. 對중국 무역 결제 형태

□ 2013년 기준 대중 무역 결제 방식은 송금(61.1%) 비중이 가장 높고 신용장(15.8%), 추심(4.1%) 등의 순임

○ 대중 무역의 송금 결제 비중은 2011년 55.7%에서 지난해 61.1%로 확대

<결제형태별 對중국 수출입>

(억달러, 비중%)

구분	연도	對세계	對중국*	대중국 결제형태**					
				송금	일람볼 L/C	기한부 L/C	D/P	D/A	기타
수출	2011	5,552.1	1,341.9 (24.2)	683.5 (50.9)	124.6 (9.3)	94.8 (7.1)	25.2 (1.9)	63.3 (4.7)	350.4 (26.1)
	2012	5,478.7	1,343.2 (24.5)	737.1 (54.9)	101.2 (7.5)	93.4 (7.0)	19.2 (1.4)	58.5 (4.4)	334.0 (24.9)
	2013	5,596.3	1,458.7 (26.1)	859.7 (58.9)	88.7 (6.1)	99.3 (6.8)	18.9 (1.3)	62.1 (4.3)	330.0 (22.6)
	2014.1~8월	3,777.2	933.8 (24.7)	515.8 (55.2)	58.3 (6.2)	65.6 (7.0)	12.1 (1.3)	44.8 (4.8)	237.3 (25.4)
수입	2011	5,244.1	864.3 (16.5)	545.9 (63.2)	91.3 (10.6)	111.7 (12.9)	5.4 (0.6)	8.5 (1.0)	101.6 (11.8)
	2012	5,195.8	807.8 (15.5)	514.3 (63.7)	76.4 (9.5)	104.2 (12.9)	3.5 (0.4)	8.3 (1.0)	101.1 (12.5)
	2013	5,155.9	830.5 (16.1)	539.5 (65.0)	69.3 (8.3)	104.4 (12.6)	3.6 (0.4)	8.3 (1.0)	105.4 (12.7)
	2014.1~8월	3,519	580.3 (16.5)	375.8 (64.8)	49.0 (8.5)	79.0 (13.6)	1.8 (0.3)	5.5 (1.0)	69.2 (11.9)
무역	2011	10,796.3	2,206.2 (20.4)	1,229.4 (55.7)	215.9 (9.8)	206.5 (9.4)	30.6 (1.4)	71.8 (3.3)	452.0 (20.5)
	2012	10,674.5	2,151.1 (20.2)	1,251.4 (58.2)	177.6 (8.3)	197.6 (9.2)	22.7 (1.1)	66.8 (3.1)	435.0 (20.2)
	2013	10,752.2	2,289.2 (21.3)	1,399.2 (61.1)	158.0 (6.9)	203.7 (8.9)	22.5 (1.0)	70.4 (3.1)	435.4 (19.0)
	2014.1~8월	7,296.1	1,514.1 (20.8)	891.5 (58.9)	107.3 (7.1)	144.6 (9.6)	13.8 (0.9)	50.4 (3.3)	306.4 (20.2)

* 괄호내 비중은 대세계 수출 대비 비중

** 괄호내 비중은 대중국 수출 대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3년 기준 대중 품목별 무역 결제 형태를 살펴보면 생활용품(73.9%), 광산물(70.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69.4%) 등의 송금 결제 비중이 높은 편

○ 반면 철강금속제품의 송금 결제 비중(42.5%)은 신용장 방식(40.3%)과 유사한 수준으로 여타 품목 대비 송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품목/결제형태별 對중국 무역 동향 (2013년)>

(억달러, 비중%)

품목명*	對세계	對중국**	對중국 결제형태***					
			송금	일람볼 L/C	기한부 L/C	D/P	D/A	기타
총계	10,752.2	2,289.2 (21.3)	1,399.2 (61.1)	158.0 (6.9)	203.7 (8.9)	22.5 (1.0)	70.4 (3.1)	435.4 (19.0)
농림수산물	385.6	58.4 (15.1)	32.7 (56.0)	11.4 (19.6)	13.0 (22.3)	0.1 (0.2)	0.5 (0.9)	0.6 (1.1)
광산물	2,569.5	109.8 (4.3)	77.9 (70.9)	11.1 (10.1)	19.7 (17.9)	0.3 (0.3)	0.6 (0.5)	0.2 (0.2)
화학공업제품	1,216.4	378.5 (31.1)	219.7 (58.0)	47.0 (12.4)	89.8 (23.7)	1.9 (0.5)	13.8 (3.7)	6.2 (1.6)
플라스틱/고무/가죽 제품	242.2	50.4 (20.8)	34.9 (69.4)	1.8 (3.6)	2.3 (4.5)	0 (0)	1.7 (3.4)	9.6 (19.1)
섬유류	294.8	90.5 (30.7)	51.2 (56.6)	10.3 (11.4)	12.5 (13.8)	0.2 (0.2)	0.8 (0.8)	15.5 (17.1)
생활용품	109.4	44.3 (40.5)	32.8 (73.9)	2.1 (4.7)	3.2 (7.1)	0.1 (0.2)	0.6 (1.3)	5.7 (12.8)
철강금속제품	877.1	198.3 (22.6)	84.2 (42.5)	36.1 (18.2)	43.8 (22.1)	0.2 (0.1)	12.0 (6.1)	21.9 (11.1)
기계류	2,293.2	312.5 (13.6)	205.9 (65.9)	27.4 (8.8)	7.7 (2.5)	19.2 (6.2)	31.0 (9.9)	21.2 (6.8)
전자전기제품	2,723.5	1,042.5 (38.3)	656.5 (63.0)	10.8 (1.0)	11.6 (1.1)	0.3 (0)	9.4 (0.9)	354.0 (34.0)
잡제품	40.5	4.0 (9.9)	3.4 (84.2)	0 (0.6)	0.2 (4.2)	0 (0.2)	0 (1.0)	0.4 (9.9)

* MTI 1단위 기준

** 괄호내 비중은 대세계 수출 대비 비중

*** 괄호내 비중은 대중국 수출 대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Ⅱ.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1. 제도적 추진 현황

- ☐ 중국은 인접국을 중심으로 양자간 협정을 통해 통화스와프 및 위안화 역외시장을 확대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

* 위안화 국제화란 위안화의 사용범위를 해외시장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

** 중국은 위안화를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결제 및 역내 통용 화폐로서의 비중과 역할을 확보한 뒤 전세계적 범위에서의 국제화페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임

- 중국 정부는 2009년에 위안화의 무역결제 활성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자국통화 국제화를 본격 추진
 - 중국 인민은행은 2009년 7월에 ‘대외무역대금 위안화결제 시범관리방법’을 제정·발표하면서 위안화를 활용한 무역결제 기반을 마련하고 홍콩과 상하이간에 최초로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짐
 - 2010년 6월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지역을 기존 5개 도시에서 20개 성으로 확대하고 해외지역제한을 철폐(전세계 모든 국가와 거래 가능)
 - 2010년 12월 중국 내 위안화 수출이 가능한 적격기업*을 1,800개사에서 67,359개사로 확대했으며, 이후 위안화 적격기업 제도를 폐지
 - * 당시 위안화 수출시 적격업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을 받지 못함
- 또한, 중국은 2009년부터 국가 간 통화스와프 및 위안화 역외시장 확대 뿐 아니라, 위안화 직접투자 규제도 완화
 - 중국은 최초로 홍콩과 2천억 위안의 통화스왑협정을 맺은 이후, 점차 남미나 호주 등으로 협정의 범위를 넓혀 현재는 한국, 몽골, 말레이시아 등 24개 국가 및 지역과 총 2조6,000억 위안 체결
 - 홍콩과 대만 내에서의 위안화 유통과 무역결제 자유화 등을 중심으로 위안화 국제화 확대의 발판 마련
 - * 역외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현황 : 홍콩, 대만, 일본, 호주, 영국, 한국(2014년 연내 개설예정)
- 최근 전세계 무역·금융에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 위안화 국제화 조치가 가속
 - 달러 대비 위안의 일일 변동폭도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pm 0.5\%$ 에서 $\pm 2.0\%$ 로 최근 5년 동안 변동폭을 4배 확대

<중국정부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제완화 및 국제화 추진경과>

시기	내용
2003년	중국 정부, 인접지역 무역에서의 위안화 유통을 정식으로 합법화 - 8개국*과 '상호화폐결제협약(双边本币结算协议)' 체결, 위안화의 무역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확대 노력중 (* 러시아, 몽골, 북한,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2008. 10월	중-러 양국간 거래에서 자국통화 결제 확대 합의
2008. 11월	중국 해협회와 대만 해기회, 양안 교역을 위안화와 대만 달러로 결제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결정
2008. 12월	중국 국무원이 상해 광둥성 지역과 홍콩-마카오간, 광서-운남지역과 ASEAN국가간의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 추진을 발표
2009.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공식화 제기
2009. 4월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와 광둥성 4개 도시(선전, 광저우, 둥관, 주하이)에서 해외무역 위안화 결제 업무 실시를 결정
2009. 4월	중국인민은행 《해외 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지역 관리 방법(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 발표 - 상해시 및 광둥성(광주, 심천, 주해, 둥관) 시범 실시(홍콩 거래시 위안화 결제 의무화)
2009. 7월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입(상하이, 광둥성 4개 도시 ↔ 홍콩, 마카오, 아세안)
2009. 8월	중국 동북3성과 주변국(러시아, 몽골, 북한 등)간 위안화 결제 추진계획을 발표
2009. 10월	브라질과 자국통화 무역결제 실시
2009. 11월	심천, 상해 등 지역 인민은행이 공문발송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에 대한 제한을 완화
2009. 12월	중국인민은행은 은감위·증감위·보감위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 기업 및 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공식 언급(12. 22)
2010. 3월	중국-벨로루시 간 상호화폐결제협약 체결
2010. 6월	위안화 무역결제 해외 대상지역 제한 철폐(베이징, 상하이 등 20개 성/시 ↔ 전 세계)
2010. 7월	중국인민은행은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위안화 무역결제에 대한 협정 체결
2010. 8월	중국인민은행, 외국 중앙은행,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 위안화 무역결제 참가은행 등의 중국 본토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 허용 (단, 중국인민은행이 투자한도 설정)
2010. 10월	외국기업 위안화 결제계좌 허용
2010. 12월	수출분야 시범기업 확대(67,359개) / 중국 기업과 은행의 위안화 해외투자 허용
2011. 1월	중국인민은행, 위안화 해외직접투자(ODI) 시범 사업 개시
2011. 3월	중국인민은행, 역외 위안화예금 신탁계좌(Fiduciary Account) 제도 발표(4월 시행)
2011. 6월	위안화를 이용한 중국내 투자 허용(신규 설립, M&A, 주식양도 등)
2011. 12월	중국-일본간 금융시장 협력 발표
2012. 5월	위안화-엔화의 직접거래 지원조치 시행
2012. 8월	대만과 화폐청산 양해각서 체결
2013. 9월	중국 정부, 상하이시의 해안지구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ade Zone) 공식 출범 - 제한적인 위안화의 자유 태환, 은행의 실질적인 금리 자유화, 외국자본도입 및 외국계와 합작 은행 설립 자유화 등 허용
2014. 3월	중국인민은행과 영란은행(BOE), 런던 내 위안화 청산결제기관 설립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4. 10월	유럽중앙은행(ECB)이 중국 위안화를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 위안화가 ECB의 외화보유액에 포함될 경우 ECB는 연말부터 위안화 매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화국제화관련 해외사례 조사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국제금융센터 「런던 내 위안화 청산결제기관 설립 및 시사점」, 한국은행 「최근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전망」 및 China Weekly(2014.7),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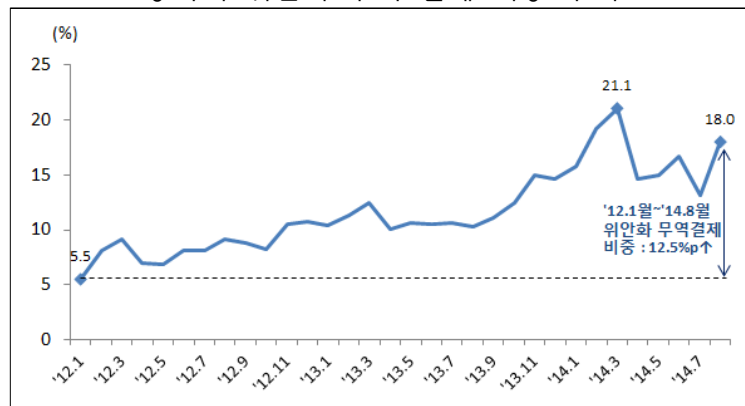
2. 위안화 국제화 현황

□ 중국의 대외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수요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

- 중국의 대외무역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2012년 1월 5.5%에서 2014년 8월 기준 18.0%로 3배 이상 증가

* 중국의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 : 8.4('12) → 11.7('13) → 16.9('14.상반기)

<중국의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 추이>



자료: 중국 인민은행, 중국해관총서, CEIC

<위안화 무역결제 추이>

(억위안, %)

	2012			2013			2014.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체	상반기	하반기	전체	
결제규모	8,686	11,914	20,600	13,600	16,500	30,100	20,900
비중	7.5	9.3	8.4	10.9	12.4	11.7	16.9

주 : 위안화 결제 비중은 전체 중국의 전체 무역규모 대비

자료 : 중국 인민은행, 중국해관총서, CEIC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금융(신용장 개설) 통화에서의 위안화 비중이 지난 2012년 1월 1.9%에서 올해 4월 8.7%로 급증하며 미국 달러 (81.1%)에 이어 세계 2위 도약

* '14.4월 기준 무역·금융 등 지급결제 통화 중 위안화 비중은 1.4%로 세계 7위 기록

- 한편, 한국과 일본의 무역업계는 위안화 결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함

* 금년 상반기 전체 무역규모 대비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

: (한국) 수출 0.4%, 수입 0.13% (일본) 수출 0.7%, 수입 0.5%

□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지난 2011년 중국정부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이후, 위안화 투자가 빠르게 증가

- 전체 직접투자 규모 중 위안화 직접투자 비중은 2011년 9.1%에서 2012년 22.1%, 2013년 38.5%로 급격히 증가
- 중국정부가 2011년 1월에 위안화 해외직접투자(ODI)를 개시한데 이어 6월부터는 외국인과 본국 기업의 중국내 위안화 직접투자를 허용
- 이에 따라 위안화 직접투자 총액은 2011년 180억 달러에서 2012년 462억 달러, 2013년에는 868억 달러로 증가

<위안화 직접투자 금액 및 비중>

(백만달러, %)

		2011	2012	2013
위안화 외국인직접투자 (FDI)	금액	14,755	41,242	72,883
	비중	11.9	34.1	62.0
위안화 해외직접투자 (ODI)	금액	3,277	4,951	13,923
	비중	4.4	5.6	12.9
전체 직접투자	금액	18,032	46,193	86,807
	비중	9.1	22.1	38.5

주 :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또는 해외직접투자 대비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중국 인민은행, 중국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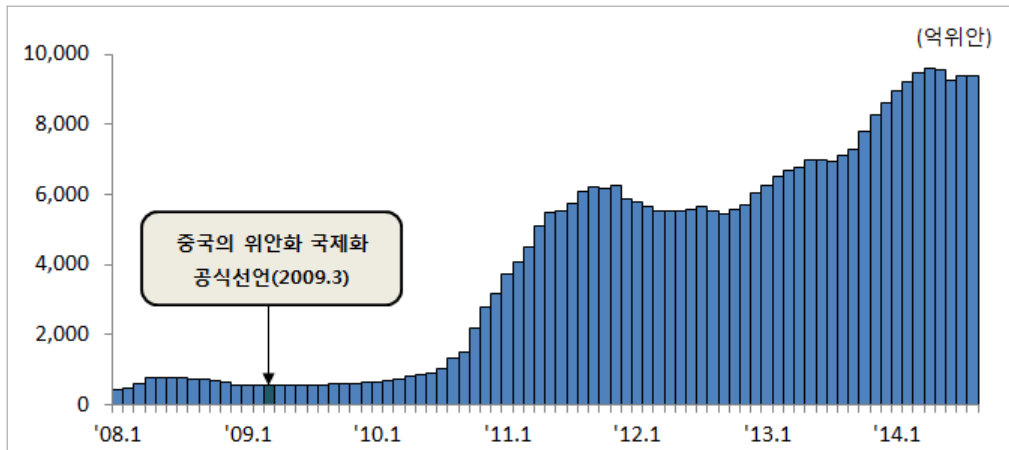
□ 자본시장 개방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홍콩을 중심으로 역외 위안화 표시 금융시장을 육성하여 무역계정을 통해 공급된 위안화의 활용지역을 확대

- 홍콩은 RMB 지급결제시스템¹⁾, 위안화 비즈니스 참가 은행들간 네트워크 등을 배경으로 전세계 최대 역외 위안화시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 * 2014.3월말 기준 홍콩의 위안화 결제시스템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220개이며, RTGS를 이용한 위안화 거래량은 일평균 7,000억 위안에 달함
- 역외 위안화 예금은 역외 위안화시장 중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홍콩 내 위안화 사 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201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

1) 역외 위안화 시장중에서 유일하게 은행간 자금거래시 위안화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Real Time Gross Settlement)을 통해 청산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 홍콩 내 위안화 예금액 추이(억위안) : 531('09.3월) → 3,706('11.1월) → 9,368('14.8월)
- * 주요 역외시장의 위안화예금 규모(십억위안)
: (홍콩, '14.8월 기준) 937 (대만, '14.6월) 293 (싱가포르, '14.5월) 220 (영국, '14.6월) 109

<홍콩 내 위안화 예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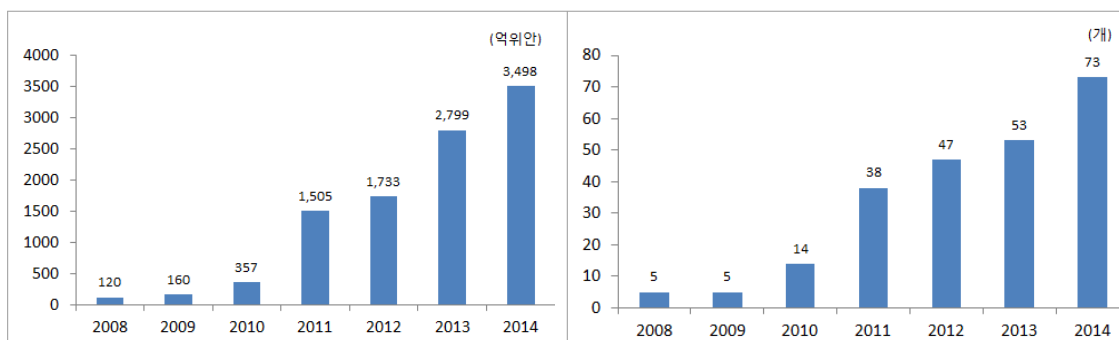
자료: 홍콩금융관리국

- 역외시장에서 발행된 위안화표시 채권 잔액은 2014.6월말 기준 약 7,500억 위안이며, 대부분이 홍콩에서 발행된 딴셴본드²⁾임
 - * 2007년 홍콩 내 딴셴본드의 발행을 시험적으로 허용한 후, 외국 기업에 딴셴본드를 발행하며 전격적으로 문호를 개방(2010.2)
- 딴셴본드의 발행규모는 2008년 120억 위안에서 2013년 2,799억 위안으로 약 23배 증가, 동 기간 발행주관사는 5개사에서 53개사로 확대

<딴셴본드의 발행추이>

가. 연간 발행액 추이

나. 발행주관사



주 : 2014년은 9월까지 누계
자료 : 블룸버그

2) 딴셴본드: 홍콩 역외시장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위안화표시 채권

☐ 최근 유럽, 한국 등 주요국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³⁾ 지정 및 외국인의 역내 자본시장 투자 한도를 확대하여 위안화 사용을 용이하게 함

- 최근 영국(런던)과 독일(프랑크푸르트), 한국(서울)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되어 향후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지역별 청산결제은행 지정 현황>

시기	상대국	결제은행
2010.7	홍콩·마카오	중국은행
2012.12	대만	중국은행
2013.4	싱가포르	중국공상은행
2014.6	영국	중국건설은행
2014.6	독일	중국은행
2014.7	한국	중국교통은행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 언론보도 종합

- 2011년 12월에 도입된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⁴⁾도 현재 총 6개국 투자자에게 6,600억 위안의 투자 쿼터를 제공

- 중국인민은행은 RQFII 참가 금융회사의 은행간채권시장(CIBM) 투자한도를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에 따라 부여함으로써 위안화 사용을 장려

☐ 상해 국제중심지 등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한 중국정부의 12차 5개년 계획이 마감되는 2015년 전후 위안화 무역·금융 등 지급결제규모가 엔화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

- HSBC는 2015년까지 위안화 결제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해 위안화가 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 국제통화로 성장하고 5년 이내에 완전히 태환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허브 육성을 추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 쿼터(800억 위안) 획득 등 한중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이 빠르게 진전

3) 청산은행: 은행 간 위안화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

4)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란 2011년 말부터 역외 위안화로 중국 국내 증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 제도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등 6개 국가에게 투자 쿼터 제공

Ⅲ. 위안화 무역결제의 장단점 및 비용·편익 비교

1. 위안화 무역결제의 장단점

- ☐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경우, 환위험 회피 및 환전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전체 무역거래 가운데 대중국 비중이 높고 대중국 무역규모가 상당한 경우

-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통화를 다변화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가장 유리한 통화를 결제통화로 선택할 수 있어 환 리스크 분산 및 기업 외화 자금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

- ☐ 위안화 결제시 중국측 거래선의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처리가 편리해지며,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협상력 증대 및 거래물량 확대 기대

- 중국측 파트너가 위안화를 달러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 외환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
 - 자회사를 중국에 둔 경우 위안화 결제는 환전수수료 절감, 환 리스크 제거 등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함

- 또한, 수출입 대금을 일부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외화(주로 미국 달러)와 위안화로 구분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 및 수출입관련 서류를 만들어야 하지만 모든 결제를 위안화로 진행하는 경우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짐

- 중국측 수입상은 수입 및 판매가격을 위안화로 관리하여 시장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시 가격인상 또는 수입시 가격인하 등의 협상이 가능

- ☐ 반면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중국측 거래선(현지법인 포함)은 환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만 한국측은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단점이 발생

- 중국측의 환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어 수출시 수입상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한국내 업체는 환리스크를 제거할 수단이 달러화에 비해 크게 줄어들음

<위안화 결제에 따른 영향>

	환리스크 관리	일반업무 절차	수출입 절차
한국측	리스크 증가	큰 영향없음	큰 영향없음
중국측	리스크 없음	간소화	간소화

2. 위안화 결제의 비용과 편익 비교

- ☐ 위안화 무역결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현지법인 유무, 대중 수출과 수입 비중과 그 규모, 기업(본사)의 외환 수급상황, 결제방식 등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움
- ☐ 이에 따라 대중국 거래형태를 한국 기업이 수출을 하는지, 수입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해 결제방식(송금방식 또는 신용장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달러화 거래와 금융비용을 비교

(1) 한국이 송금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 송금방식으로 수출한 경우 중국의 수입업체는 환전비용이 절감되지만 한국내 수출업체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음
 - 중국내 수입업체는 100만 달러 거래시 환전비용(1,362,500원) 절감이 가능하지만 한국내 수출업체는 비용측면에서 달러화 결제와 동일
 - 중국내 수입업체가 한국 수출기업의 현지 투자법인인 경우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음
 - 수출대금을 수령한 한국내 수출업체가 자금운용에서 여유가 있어 고금리의 위안화 예금 가입이 가능하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 2014년 10월 현재 외화정기예금 운용수익(3개월기준): 위안화(1.5223%), 달러화(0.4638)

<송금방식 수출결제 비용비교(100만 달러 기준)>

(원)

	송금방식-한국수출			
	USD송금		CNY송금	
	한국수출자	중국수입자	한국수출자	중국수입자
환전비용	5,450,000	1,362,500	5,450,000	0
수수료	15,000	179,850	15,000	179,850
소계	5,465,000	1,542,350	5,465,000	179,850
총비용	7,007,350		5,644,850	
차액	0		1,362,500	
결과	-		위안화 거래 이익	
가정	- 한국 환전비용: 0.5% - 중국 환전비용: 0.125% - 원/달러 환율: 1.090			

(2) 한국이 신용장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 신용장 방식으로 한국이 수출한 경우 중국내 수입상은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한국 수출업체는 추가 비용 발생
- 중국내 수입업체는 환전수수료 등 환전비용(1,362,500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한국내 수출업체는 위안화의 환가료가 달러화보다 비싸 추가 비용(887,600원) 발생
- * 2014년 9월초 기준 환가료율(3개월물) : 미 달러화(2.7%), 위안화(5.7%)

<신용장방식 수출결제 비용비교(100만 달러 기준)>

(원)

	신용장방식(Sight Remittance)-한국수출			
	USD송금		CNY송금	
	한국수출자	중국수입자	한국수출자	중국수입자
환전비용	5,450,000	1,362,500	5,450,000	0
수수료	593,378	2,784,950	1,480,978	2,784,950
소계	6,043,378	4,147,450	6,930,978	2,784,950
총비용	10,190,828		9,715,928	
차액	0		474,900	
결과	-		위안화 거래 이익 (한국수출자 손실)	
가정	- 한국 환전비용: 0.5% - 위안화 금리: 5.66% - USD 금리: 2.33%		- 중국 환전비용: 0.125% - KRW 금리: 4.81% - 원/달러 환율: 1,090	

(3) 한국이 송금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 ☐ 송금방식으로 수입한 경우 중국의 수출업체는 환전비용 및 수수료가 절감되지만 한국내 수입업체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음(만약 본지사간 거래라면 이득을 공유할 수 있음)

<송금방식 수입결제 비용비교(100만 달러 기준)>

(원)

	송금방식-한국수입			
	USD송금		CNY송금	
	한국수입자	중국수출자	한국수입자	중국수출자
환전비용	5,450,000	1,362,500	5,450,000	0
수수료	33,000	27,250	33,000	27,250
소계	5,483,000	1,389,750	5,483,000	27,250
총비용	6,872,750		5,510,250	
차액	0		1,362,500	
결과	-		위안화 거래 이익	
가정	- 한국 환전비용: 0.5% - 원/달러 환율: 1,090		- 중국 환전비용: 0.125%	

(4) 한국이 신용장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 ☐ 신용장 방식으로 한국이 수입한 경우 중국내 수출상은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한국내 수입업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
- 중국내 수출업체는 환전비용(1,362,500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813,867원)하여 전체적으로는 548,633원 이익 발생
 - 중국 수출업체는 위안화 수출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람불 신용장이 아닌 외상방식의 경우 환가료 외에 높은 할인이자 부담으로 중국 수출업체가 손실을 볼 수도 있음

<신용장방식 수입결제 비용비교(100만 달러 기준)>

(원)

	신용장방식(Sight Remittance, 유효기간 3개월)-한국수입			
	USD송금		CNY송금	
	한국수입자	중국수출자	한국수입자	중국수출자
환전비용	5,450,000	1,362,500	5,450,000	0
수수료	2,636,000	2,998,711	2,636,000	3,812,578
소계	8,086,000	4,361,211	8,086,000	3,812,578
총비용	12,447,211		11,898,578	
차액	0		548,633	
결과	-		위안화 거래 이익	
가정	- 한국 환전비용: 0.5% - 중국 환전비용: 0.125% - 위안화 금리: 5.66% - USD 금리: 2.30% - KRW 금리: 4.81% - 원/달러 환율: 1.090			

Ⅳ. 대중국 무역업체 위안화 수요 인터뷰 결과

A사

달러 초과공급

- ☐ 기업 전체적으로 달러의 초과공급 상태로 결제통화 다양화를 위해 대중 무역결제의 위안화 전환을 적극 고려
 - 총수출이 총수입을 크게 초과하여(총수출이 총수입의 약 3배) 기업 전체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
 - 결제통화 다양화 차원에서 대중 거래시 위안화 전환을 적극 검토중
 - 또한 현지법인의 환거래비용 절감 및 환리스크 해지에 긍정적인 것도 고려요인
 - * 대중 수출시 전량 현지법인(100%)을 통해 수출
 - 늦어도 1년 내에 수출, 수입 모두 100% 위안화 전환 예정
- ☐ 하지만 위안화를 수출대금으로 받고 이를 다시 수입대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미미
 - * 직간접 수출 및 중계무역 수입 포함시 대중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뤄 위안화 수급이 타이 트함
- ☐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은행의 위안화 예금서비스 개시, 금융권의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을 건의

B사

달러 초과수요, 수입 원자재 달러결제 비중 높음

- ☐ 총수입이 총수출을 크게 초과하여 기업 전체적으로 달러 초과수요 상태로 위안화 사용 계획이 없음
 - 달러 초과수요 상태이고(총수입이 총수출의 약 3배) 약세통화인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위안화 이용 계획이 없음
 - 또한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대금으로 달러 확보시 수입대금 결제로 즉시 소진
 - 2013년 중국 현지법인 대상 위안화 결제수요 조사 결과, 대부분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

C사

달러 수급 타이트, 수입 원자재 달러결제 비중 높음

- ☐ 총수출과 총수입이 비슷하여 달러 수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원자재 수입 전액을 달러로 결제하고 있어 위안화 사용 유인이 없음
 - 수출대금으로 달러 확보시 이를 수입대금 결제로 사용
 - 원재료 수입을 전액 달러로 결제하고 있어 위안화를 사용할 경우 달러차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위안화 사용 유인이 매우 낮음
 - 중국 거래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안화 사용을 검토할 예정이나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중국 거래처들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달러 결제를 선호 (대중 수출시 거래상대방 형태 : 현지법인 1%, 중국 거래처 99%)
- ☐ 향후 달러 결제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물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국내 정유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원재료(전체 원재료구입의 5%) 도 전액 달러 결제하고 있어 직거래 활용 가능성은 낮음

D사

달러 초과공급이고 원-위안화 환전 계획

* 총수출이 총수입의 약 5배

- ☐ 환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현재 위안화 전환을 적극 검토
 - 2011년 위안화 변경을 검토했으나 현지법인의 달러결제 관행 등 업무상 편의로 중단, 최근 직거래시장 개설을 계기로 위안화 전환을 재추진중
 - 향후 2~3년 내에 대중 수출, 수입 모두 위안화 100% 전환할 계획
-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용 계획
 - 대중 거래시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받고 원화 환전 후 국내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
- ☐ 금융권의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을 희망

[표 1] A사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무역규모(2013)	총수출 대비 총수입 규모	총수출이 총수입의 약 3배 (중계무역 수입 포함시 수출, 수입 규모 비슷)
	대중수출 비중	31.4%
	대중수입 비중	24.2%
대중 주력품목	수출	전기전자
	수입	전기전자 및 기계류
대중 거래형태	거래상대방 회사 형태	수출 : 현지법인이 대부분 수입 : 현지법인이 대부분
	수출시 현지 법인의 거래형태	중국 내수시장 유통이 대부분
대중 결제방식	수출	송금(70% 내외), 기타(30% 내외)
	수입	송금(70% 내외), 기타(30% 내외)
대중 결제통화 비중	수출	대부분 US 달러, 위안화는 미미 (달러위주의 관행 등 외환관리 업무상의 편의로 지금까지 미 달러를 이용)
	수입	대부분 US 달러, 위안화는 미미 (달러위주의 관행 등 외환관리 업무상의 편의로 지금까지 미 달러를 이용)
환위험 헤지 방법		헤지를 하지 않고 있음(결제기간이 짧아 달러 확보시 수입대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즉시 원화로 환전) 다만 자산-부채 매칭을 통해 일정부분 헤지
대중 결제통화 변경시 의사결정 과정		현지법인 및 중국 거래처의 의견을 참조하지만 본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며 최고경영진까지 보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인지 및 활용 여부		인지하고 있으나 향후 활용가능성은 낮음 위안화를 수출대금으로 받고 수입대금으로 지불할 예정이므로 직거래시장 물량은 미미
향후 위안화 이용 계획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중 수출 및 수입 모두 위안화로 전환을 검토중 늦어도 1년 내에 수출, 수입 모두 100% 위안화로 전환 예정
위안화 전환 이유		기업 전체적으로 달러 초과공급 상태. 결제통화 다양화 차원에서 중국과의 거래에 대해 위안화 전환 필요 또한 현지법인의 환거래비용 절감 및 환리스크 헤지에 긍정적
애로 및 건의 사항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은행의 위안화 예금서비스 개시 희망 금융권의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 필요

[표 2] B사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무역규모(2013)	총수출 대비 총수입 규모	총수입이 총수출의 약 3배
	대중수출 비중	29.9%
	대중수입 비중	3.5%
대중 주력품목	수출	철강금속
	수입	철강금속
대중 거래형태	거래상대방 회사 형태	수출 : 현지법인(50% 내외), 중국 거래처(40% 내외)
	수출시 현지 법인의 거래형태	중국 내수시장 유통이 대부분
대중 결제방식	수출	송금(99%), 기타(1%)
	수입	송금(92%), 추심(7%), 신용장(1%)
대중 결제통화 비중	수출	대부분 US 달러, 위안화는 미미 (달러위주의 관행 등 외환관리 업무상의 편의로 지금까지 미 달러를 이용)
	수입	대부분 US 달러, 위안화는 미미 (달러위주의 관행 등 외환관리 업무상의 편의로 지금까지 미 달러를 이용)
환위험 헤지 방법		순수입의 30~40% 헤지 (매출의 80%를 원료수입이 차지하여 달러 확보시 수입대금 결제로 소진)
대중 결제통화 변경시 의사결정 과정		구매 및 판매부서, 현지법인 의견을 참조하여 재무팀 검토 후 최고경영진까지 보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인지 및 활용 여부		인지하고 있으나 향후 활용가능성은 낮음 수입대금 지불을 위한 달러수요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활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향후 위안화 이용 계획		'13년 중국 현지법인 대상 위안화 결제수요 조사결과, 대부분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 하지만 향후 시장상황 및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위안화 전환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은 있음. 또한 외환 초과수요로 인해 약세통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위안화 이용 계획이 없음
위안화 전환 이유		-
애로 및 건의 사항		위안화는 CLS은행 ⁵⁾ 취급 통화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제 결제통화로서의 안전성이 없어 선뜻 사용하기가 꺼려짐 현재 외환보유 환차손 및 위안화 결제시 높은 환전수수료 등이 가장 큰 고려대상

5) continuous lead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에 따라 외환매매 거래시 국가간 시차로 발생하는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든 은행으로 CLS 은행과 결제회원은행, 결제통화국 중앙은행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어 매도통화의 지급과 매입통화 수취를 동시 처리

[표 3] C사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무역규모(2013)	총수출 대비 총수입 규모	총수출과 총수입의 규모가 비슷
	대중수출 비중	38.3%
	대중수입 비중	0.2%
대중 주력품목	수출	석유화학
	수입	광산물, 석유화학
대중 거래형태	거래상대방 회사 형태	수출 : 중국 거래처가 대부분 수입 : 중국 거래처가 대부분
	수출시 현지 법인의 거래형태	내수시장 유통(50%), 가공무역(50%)
대중 결제방식	수출	송금, 신용장 각각 50% 내외
	수입	송금이 대부분
대중 결제통화 비중	수출	대부분 US 달러, 위안화는 미미 (달러위주의 관행 등 외환관리 업무상의 편의로 지금까지 미 달러를 이용)
	수입	대부분 US 달러 (국내 정유회사에서 구입하는 원재료(전체 원재료 구입의 5%) 결제도 달러 사용)
환위험 헤지 방법		헤지를 하지 않고 있음 (달러 확보시 수입대금으로 즉시 결제) 다만 자산-부채 매칭을 통해 상당부분 헤지
대중 결제통화 변경시 의사결정 과정		본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며 최고경영진까지 보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인지 및 활용 여부		인지하고 있으나 향후 활용가능성은 매우낮음. 향후 달러 결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직거래시장 물량은 미미할 것
향후 위안화 이용 계획		상해 현지법인(전체 수출의 1% 차지)의 소량 위안화 거래를 용인하고 있는 중. 중국 바이어의 요구가 있을시 위안화 결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나 가능성은 낮음
위안화 전환 이유		중국 거래처의 위안화 결제 수요가 있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나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중국 거래처들도 기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달러 결제를 선호
애로 및 건의 사항		원가의 90% 이상을 원재료 수입액이 차지하며 전액 달러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전체적으로 달러 수요가 절대적인 상태. 위안화를 이용할 경우 달러 차입이 늘어나게 되어 위안화 사용 유인이 매우 낮음

[표 4] D사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무역규모(2013)	총수출 대비 총수입 규모	총수출이 총수입의 약 5배
	대중수출 비중	15.2%
	대중수입 비중	15.9%
대중 주력품목	수출	기계류
	수입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 등
대중 거래형태	거래상대방 회사 형태	수출 : 현지법인(80% 내외), 중국 거래처(20% 내외) 수입 : 현지법인(40% 내외), 중국 거래처(60% 내외)
	수출시 현지 법인의 거래형태	내수시장 유통이 대부분
대중 결제방식	수출	송금(50%), 신용장(50%)
	수입	송금(50%), 신용장(50%)
대중 결제통화 비중	수출	대부분 US 달러, 위안화는 미미 (달러위주의 관행 등 외환관리 업무상의 편의로 지금까지 미 달러를 이용)
	수입	대부분 US 달러, 위안화는 미미 (달러위주의 관행 등 외환관리 업무상의 편의로 지금까지 미 달러를 이용)
환위험 헤지 방법		순수출의 50%를 선물환 등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 (외화 획득시 원화로 환전 후 협력업체 대금으로 지급하여 유동성은 많지 않음)
대중 결제통화 변경시 의사결정 과정		환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 현지법인은 본사의 방침을 따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인지 및 활용 여부		인지하고 있으며 국내 협력업체 대금 지급시 활용할 계획(위안화를 수출대금으로 받고 원화 환전 후 국내업체에 대금지급)
향후 위안화 이용 계획		향후 2~3년 내에 수출, 수입 모두 100% 위안화로 전환할 계획임
위안화 전환 이유		위안화로 거래시 중국 거래처와의 단가 협상력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 또한 현지법인의 환거래비용 절감 및 환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적극 검토. 11년 위안화 변경을 검토했으나 현지법인의 달러 선호로 중단, 최근 청산결제은행 및 직거래시장 개설을 계기로 위안화 결제 재추진 중
애로 및 건의 사항		금융권의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 필요. 위안화의 높은 환가료도 부담

V. 대중국 무역업체 위안화 수요 분석

1. 분석개요

☐ 주요 분석기준

- [달러화 수급 기준] 대중 무역업체 대상 현장 인터뷰 결과, 달러화 수급 상황 및 제3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 규모에 따라 업체별로 위안화 사용에 대한 수요가 상이
- [결제 형태 기준] 송금, 신용장, 추심 등 다양한 무역결제 방식 중 환가료 부담이 적은 송금 방식 수출입 금액이 위안화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업체별 대중 수출입 금액 중에서도 송금 방식 수출입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석대상 기업

- 업체별 달러화 수급 및 무역결제 형태들을 반영하여 대중 무역의 위안화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위 분석이 필요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 기준 전체 대중 무역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 수출입 상위 2,000개사를 기준으로 위안화 사용 가능 업체 및 수출입 금액을 추정

<대중 무역 상위 업체 교역 추이>

(억달러, 비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대중 무역 상위 2000개사*			전체 대중 무역 중 상위 2000개사 비중(c/a)
	대중 무역액 (a)	대세계 무역액 (b)	비중 (a/b)	대중 무역액 (c)	대세계 무역액 (d)	비중 (c/d)	
2011	2,206.2	10,796.3	20.4	1,571.1	7,755.5	20.3	71.2
2012	2,151.1	10,674.5	20.2	1,667.1	7,898.4	21.1	77.5
2013	2,289.2	10,752.2	21.3	1,907.3	8,121.2	23.5	83.3
2014.1~8월	1,514.1	7,296.1	20.8	1,224.8	5,420.1	22.6	80.9

* 2013년 무역액(수출+수입)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분석대상 기업의 교역액 및 무역결제 형태

- 분석대상 기업들의 대중 교역 결제형태별 비중은 송금(58.9%), 신용장(14.9%), 추심(4.7%) 등의 순으로 송금 방식이 가장 높은 가운데 송금 방식 결제 비중은 2011년 52.0%에서 지난해 58.9%로 확대

<대중 무역 상위 업체 결제형태별 교역 추이>

(억달러, 비중%)

	송금	일람불 L/C	기한부 L/C	D/P	D/A	기타	대중 무역액
2011	816.6 (52.0)	143.0 (9.1)	144.3 (9.2)	65.9 (4.2)	65.9 (4.2)	372.7 (23.7)	1,571.1 (100.0)
2012	922.5 (55.3)	123.8 (7.4)	148.2 (8.9)	21.5 (1.3)	63.1 (3.8)	388.0 (23.3)	1,667.1 (100.0)
2013	1,123.6 (58.9)	123.9 (6.5)	159.5 (8.4)	21.6 (1.1)	67.9 (3.6)	410.6 (21.5)	1,907.3 (100.0)
2014.1~8월	681.2 (55.6)	80.7 (6.6)	111.4 (9.1)	13.3 (1.1)	48.5 (4.0)	289.7 (23.7)	1,224.8 (100.0)

주 : 1) 2013년 대중 무역액(수출+수입) 상위 2,000개사 기준

2) 괄호내 비중은 2,000개사의 전체 대중 무역액 대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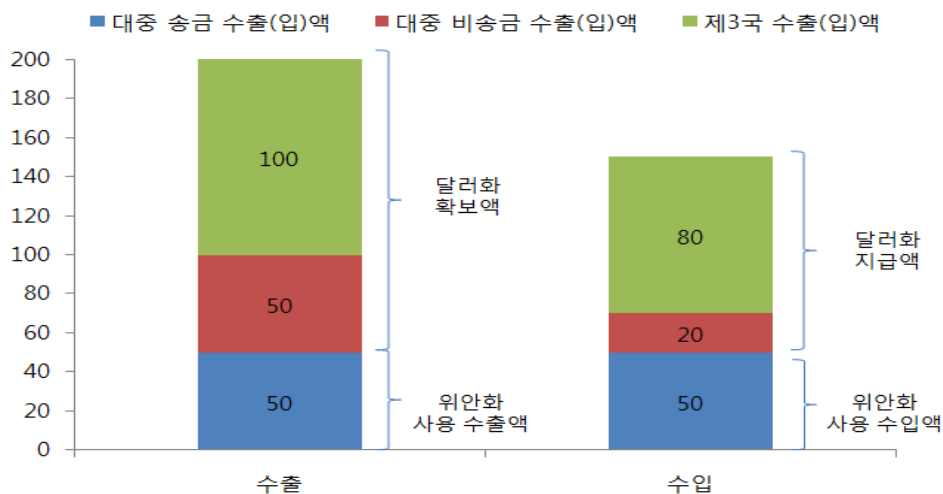
- 2013년 기준 대중 무역 상위 업체들의 평균 대중 무역액은 95.4백만 달러, 대세 계 무역 대비 대중 무역 비중은 56.6%, 대중 무역 중 송금 방식 무역 비중은 64.5%에 달함

2. 기업별 위안화 수요 추정

□ 주요 분석변수

- [달러화 수급] 대중 무역업체들의 달러화 수급 상황 및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달러화 지급 초과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석변수를 고려
 - 달러화 확보액 = 제3국 수출액 + 대중 비송금 방식 수출액
= 전체 수출 - 대중 송금 방식 수출액
 - 달러화 지급액 = 제3국 수입액 + 대중 비송금 방식 수입액
= 전체 수입 - 대중 송금 방식 수입액
 - 달러화 지급 초과(부족)액 = 달러화 지급액 - 전체 수출액
- [대중 수출입 결제형태] 대중 수출, 수입액 중 송금 방식에 한해 위안화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안화 사용 수출액과 수입액으로 간주
 - 위안화 사용 수출액 = 전체 대중 수출액 - 대중 비송금 방식 수출액
= 대중 송금 방식 수출액
 - 위안화 사용 수입액 = 전체 대중 수입액 - 대중 비송금 방식 수입액
= 대중 송금 방식 수입액

<대중 무역업체의 달러화 수급 및 결제형태 도해>



□ 상기 분석변수들을 활용하여 기업별 외환수급 및 결제형태 등에 따라 대중 무역업체들을 사례별로 분류하고 실제 위안화 사용 가능액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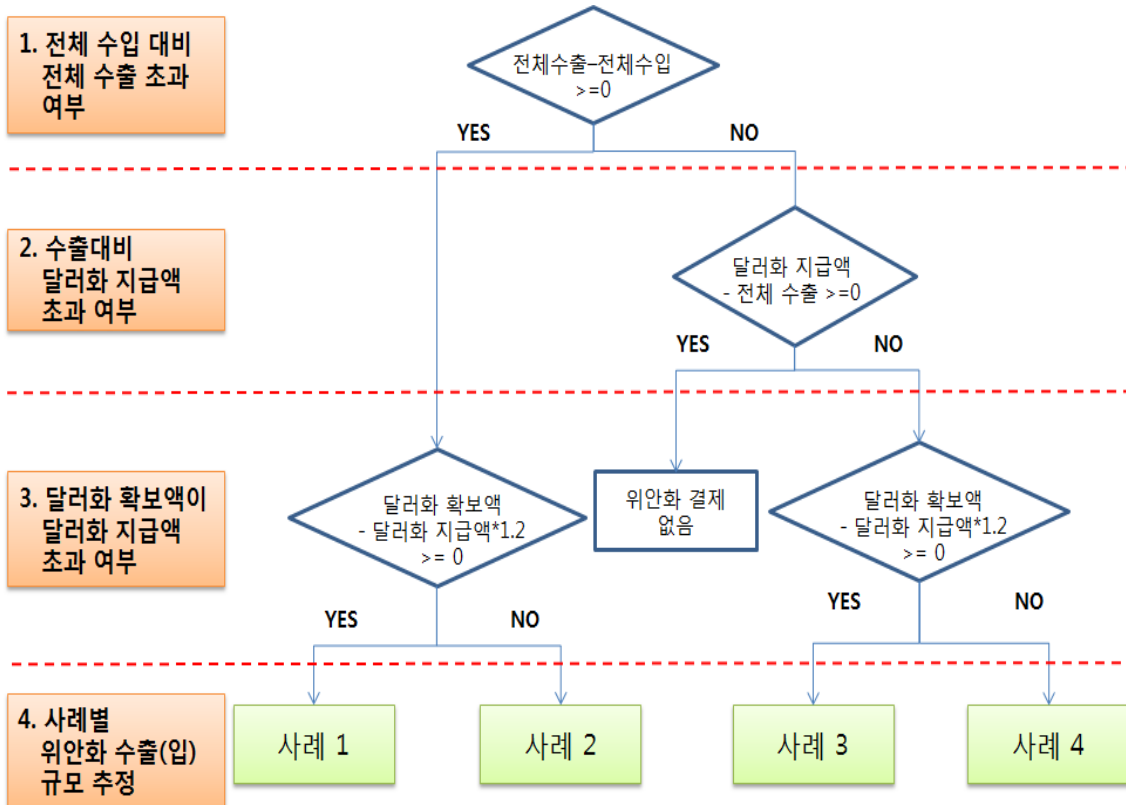
- ① 전체 수출의 전체 수입 초과 여부, ② 수출 대비 달러화 지급액 초과 여부*, ③ 달러화 확보액이 지급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총 4가지 사례로 분류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례별 위안화 수출, 수입 금액을 추정***

* 달러화 지급액(=제3국 수입액+대중 비송금 방식 수입액)이 전체 수출을 초과하는 경우 위안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

** 달러화 지급액은 일정분의 여유분을 감안하여 1.2의 가중치를 적용

*** 실제 위안화 수출, 수입액은 대중 송금 수출, 수입액의 90% 정도를 반영(중국의 거래 상대 업체도 원부자재 수입을 위해 달러화를 선호한다고 가정).

<기업별 위안화 수출, 수입액 추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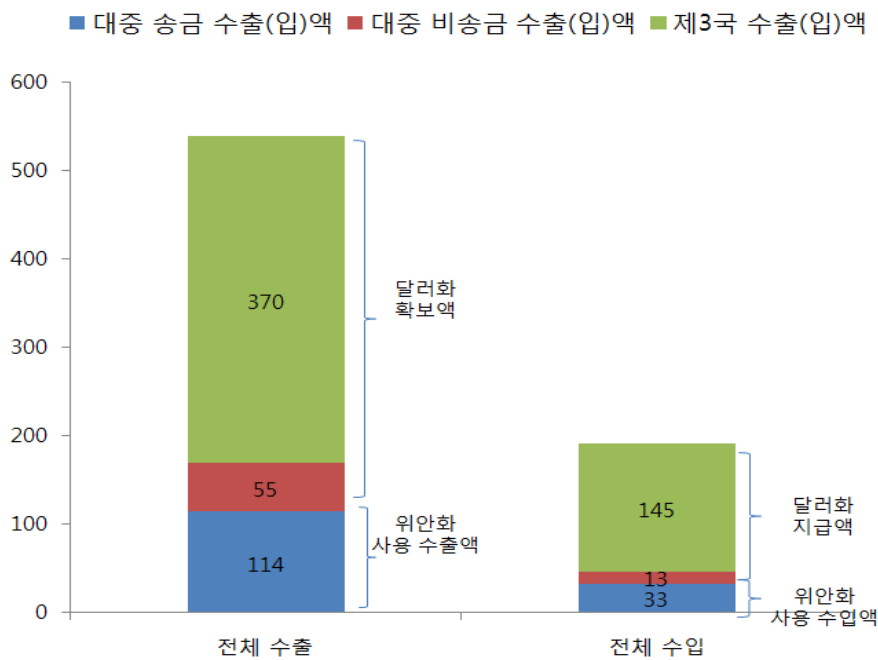


【참고】 사례별 위안화 수출, 수입액 추정(예시)

사례 1

전체 수출액이 전체 수입액을 초과하고,
달러화 확보액이 달러화 지급액을 상회하는 경우

□ 위안화 수출액(103), 수입액(30)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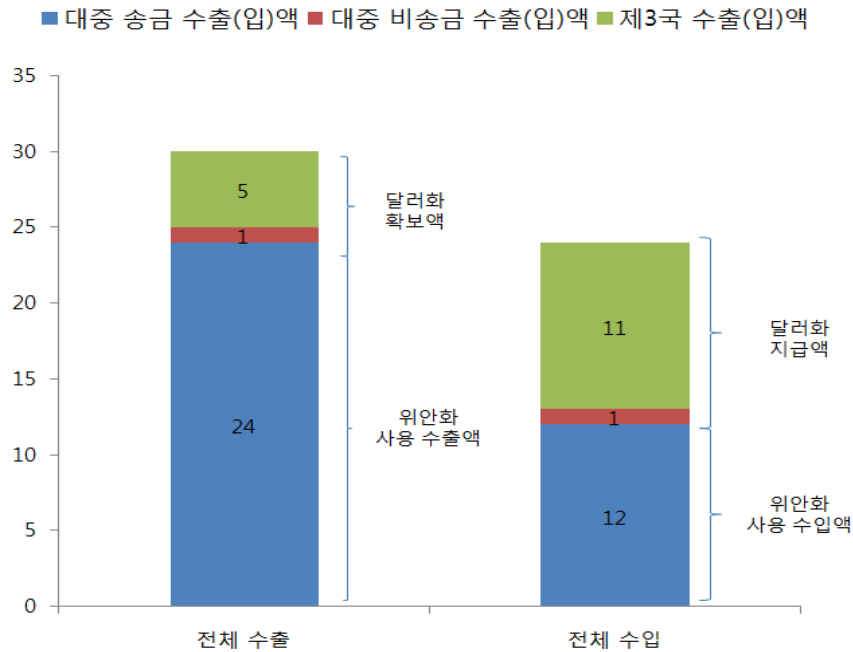


단계	분류기준 및 위안화 사용 추정액
1단계	전체 수출액(539) > 전체 수입액(191)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달러화 확보액(370+55) > 달러화 지급액(145+13) × 1.2* * 달러화 결제 수요에 대한 일정분의 여유분을 감안 가중치(1.2) 적용
4단계	위안화 사용 수출입 규모 추정 - 수출액(103) = 114 × 0.9* - 수입액(30) = 33 × 0.9 * 중국의 거래상대 업체도 대외 무역 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선호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송금 수출, 수입액의 90%로 산정

사례 2

전체 수출액이 전체 수입액을 초과하고 달러화 확보액이 달러화 지급액을 하회하는 경우

□ 위안화 수출액(14), 수입액(10)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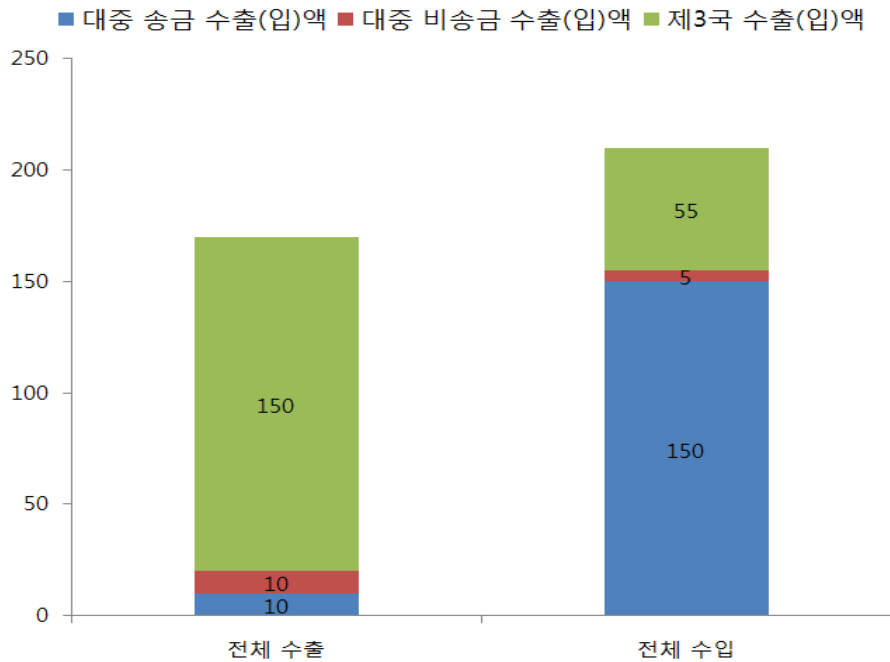


단계	분류기준 및 위안화 사용 추정액
1단계	전체 수출액(30) > 전체 수입액(24)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달러화 확보액(6) < 달러화 지급액(12) × 1.2* * 달러화 결제 수요에 대한 일정분의 여유분을 감안 가중치(1.2) 적용
4단계	위안화 사용 수출입 규모 추정 - 수출액(14) = {30 - (6 + 6*)} × 1.2 × 0.9** * 위안화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에서 달러화 지급 부족분(-6=달러화 확보액(6)-달러화 지급액(12))의 절대 금액을 제외하여 최종 산출 ** 중국의 거래상대 업체도 대외 무역 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선호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송금 수출(입)액의 90%로 산정 - 수입액(10) = 12 × 0.9

사례 3

전체 수출액이 전체 수입액을 하회하고
달러화 지급액이 전체 수출액을 하회하며
달러화 확보액이 달러화 지급액을 상회하는 경우

□ 위안화 수출액(9), 수입액(135)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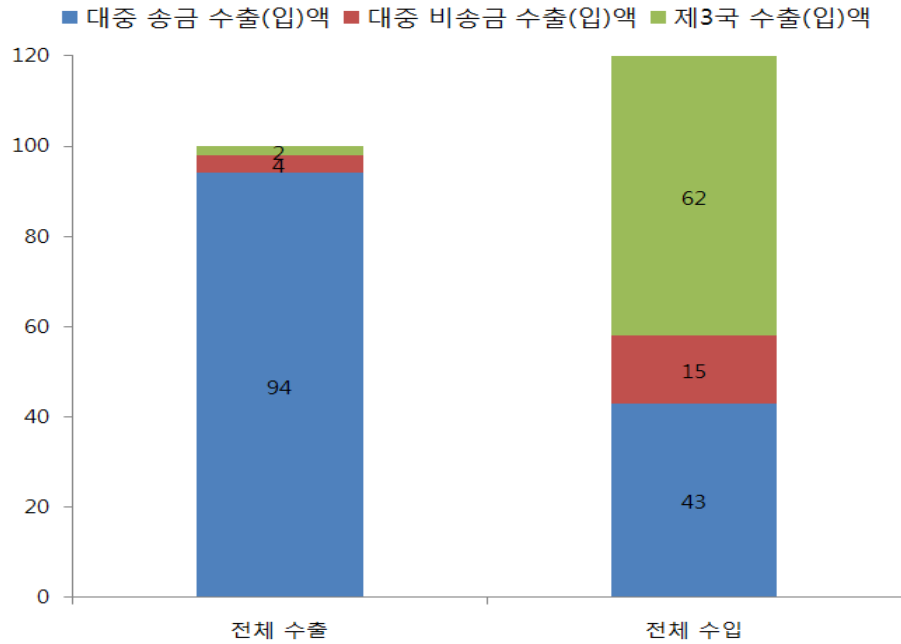


단계	분류기준 및 위안화 사용 추정액
1단계	전체 수출액(170) < 전체 수입액(210)
2단계	달러화 지급액(60) < 전체 수출액(170)
3단계	달러화 확보액(160) > 달러화 지급액(60) × 1.2* * 달러화 결제 수요에 대한 일정분의 여유분을 감안 가중치(1.2) 적용
4단계	위안화 사용 수출입 규모 추정 - 수출(9) = 10 × 0.9* * 중국의 거래상대 업체도 대외 무역 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선호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송금 수출(입)액의 90%로 산정 - 수입(135) = 150 × 0.9

사례 4

전체 수출액이 전체 수입액을 하회하고
달러화 지급액이 전체 수출액을 하회하며
달러화 확보액이 달러화 지급액을 하회하는 경우

□ 위안화 수출액(7), 수입액(39) 추정



단계	분류기준 및 위안화 사용 추정액
1단계	전체 수출(100) < 전체 수입(120)
2단계	달러화 지급액(77) < 전체 수출(100)
3단계	달러화 확보액(6) < 달러화 지급액(77) × 1.2* * 달러화 결제 수요에 대한 일정분의 여유분을 감안 가중치(1.2) 적용
4단계	위안화 사용 수출입 규모 추정 - 수출(7) = {100 - (6 + 71*)} × 1.2 × 0.9** * 위안화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에서 달러화 지급 부족분(-71=달러화 확보액(6)-달러화 지급액(77))의 절대 금액을 제외하여 최종 산출 ** 중국의 거래상대 업체도 대외 무역 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선호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송금 수출(입)액의 90%로 산정 - 수입(39) = 43 × 0.9

□ 2013년 대중 무역 상위 업체 2,000개사를 기준으로 위안화 사용 가능 업체수 및 금액을 종합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총 1,183개사, 7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대중 무역에 있어 위안화 사용 시기는 업체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안화 추정액 평가시 이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위안화 사용 수출액은 493.2억 달러, 수입액은 231.8억 달러로 전체 위안화 무역액은 725.0억 달러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
- 위안화 사용 예상 수출입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대중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33.8%, 수입 27.9%, 무역 31.7%임

<위안화 결제 업체 및 금액 추정>

(억달러, 개사, 비중%)

구분	업체수	위안화 결제 수출		위안화 결제 수입		위안화 결제 무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례 1	805	428.2	29.4	162.6	19.6	590.8	25.8
사례 2	222	61.8	4.2	26.2	3.2	88.0	3.8
사례 3	99	1.7	0.1	33.8	4.1	35.5	1.6
사례 4	57	1.5	0.1	9.2	1.1	10.6	0.5
총계	1,183	493.2	33.8	231.8	27.9	725.0	31.7

주 : 1) 2013년 대중 무역액(수출+수입) 상위 2,000개사 기준
 2)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대중 수출, 수입, 무역 대비 비중
 3) 각 사례별 분류는 p.27 참조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위안화 사용 전환 가능 추정액(725.0억 달러) 중 기업별 자체적인 위안화 수요를 제외하고 원-위안화 거래 시장을 통해 수요/공급될 수 있는 금액은 463.5억 달러로 추정

- 기업별로 위안화 수급이 타이트한 업체(위안화 수출 규모와 위안화 수입 규모가 유사한 업체)⁶⁾를 제외*하고 (위안화 수출액-위안화 수입액)의 절대금액 만큼이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 수요/공급될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

* 위안화 사용 수출을 통해 확보한 위안화를 대부분 위안화 사용 수입에 충당한 업체

<위안화 시장 거래 금액 추정>

(억달러, 개사, 비중%)

구분	업체수	위안화 사용 무역액	비중
사례 1	791	378.5	52.2
사례 2	215	45.3	6.3
사례 3	99	32.0	4.4
사례 4	57	7.7	1.1
총계	1,162	463.5	63.9

주 : 1) 비중은 위안화 전환 가능 추정액(725.0억 달러) 대비 비중임

3) 각 사례별 분류는 p.27 참조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0.9 \leq \text{위안화 수출/위안화 수입} \leq 1.1$

Ⅵ. 요약 및 결론

- ☐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3%에 달함
 - 지난 20여년간 대중국 무역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0%에서 2013년 21.3%에 달함
 - 우리나라의 對중국 누적투자는 482.5억 달러(투자금액 기준)로 투자국 중 미국(536.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신규법인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최대 투자 대상국임
- ☐ 대중국 교역규모에 비해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비중은 극히 미미
 -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금년 2/4분기 중 수출의 1.9%, 수입의 0.8%에 불과
- ☐ 최근 중국은 인접국을 중심으로 양자간 협정을 통해 통화스와프 및 위안화 역외시장을 확대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
 - 중국의 대외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2012년 1월 5.5%에서 2014년 8월 기준 18.0%로 3배 이상 증가
 -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지난 2011년 중국정부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이후, 전체 직접투자 규모 중 위안화 직접투자 비중은 2011년 9.1%에서 2012년 22.1%, 2013년 38.5%로 급격히 증가
- ☐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등 위안화 활용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
 -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허브 육성을 추진

-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내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 쿼터(800억 위안)를 획득

☐ 위안화 무역결제에는 대중국 무역비중이 높고 무역규모가 상당한 기업의 경우 환위험 회피 및 환전수수료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음

☐ 거래형태별로는 송금방식*이면서 현지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위안화 전환 무역결제의 비용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 2013년 기준 대중 무역 결제 방식 : 송금(61.1%), 신용장(15.8%), 추심(4.1%)

- 우리나라가 송금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국내 수입업체의 환전비용이 절감되며,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송금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중국의 수출업체는 환전비용 및 수수료가 절감

- 특히 중국내 거래업체가 한국 수출기업의 현지 투자법인인 경우 본지사간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업별로 외환수급, 결제방식, 대중 수출·수입을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2013년 대중 무역 상위 업체 2,000개사* 가운데 총 1,183개사가 725.0억 달러를 위안화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대중 무역 상위 업체 2,000개사는 대중 무역 전체의 83.3% 차지

- 위안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수출 493.2억 달러, 수입 231.8억 달러로 대중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7%에 달함
- 개별 기업의 전체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원부자재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화 공급이 충분한 업체일수록 위안화로의 무역결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 위안화 수요 추정액(725.0억 달러) 중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은 463.5억 달러로 추정

- 대중 송금 수출액이 대중 송금 수입액보다 큰 기업일수록 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 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거래·결제 시스템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원-위안 무역결제의 장점* 및 활용관련 정보제공 등 대업체 홍보 강화로 충분한 거래수요 확보가 중요

* 거래비용 절감, 환위험 제거 등

- 금융기관은 위안화 예금서비스 개시,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로 대중국 업체의 위안화 거래시 환위험 제거 및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

대중국 무역업체 위안화 수요 분석

Trade Focus Vol.13 No.51

발행인 | 한덕수

편집인 | 오상봉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4년 11월 6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